

주일에배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클드	



주일에배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8년 7월 22일 (제960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성공의 참 지혜

성공하길 원하면 타인에 대한 존경심과 그의 욕구를 충족시켜라.

목회나 사업, 정치의 성공을 향해 멈추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자기 자신을 향한 초점을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는 것이다. 나보다 이웃, 직원, 국민, 교인의 욕구충족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복잡하고 세부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들이 자신의 일로 알고 최선을 다해 돕게 됨으로 매우 유용하다. 삼겹줄은 강하기 때문이다.

오래 전 미국 L.A.에서 흑인폭동이 일어났었다. 그 때 한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우리 친척 중 한 분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분은 평상시에 흑인들의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옹호하며 친분을 쌓았다. 그랬더니 폭동이 일어났을 때 흑인들이 중무장을 하고 그 분의 집을 둘러싸고 보호해줘서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한다.

오로지 자기 자신의 성공에만 사로잡힌 사람은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보는 눈이 좁아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다. 성공하려면 고객 욕구에 초점을 맞춰라. 그는 상대의 의도와 목적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것을 파악하고 상대의 욕구를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인도하는 인간관계를 오래 유지하게 됨으로 장기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그 사람이 당신의 좋은 광고주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판매하든 사람들이 그것을 구입하는 이유는 당신이 그것을 팔고자 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그것을 구입하는 것은 그들의 필요와 욕구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것을 깨달을 때 겸손할 수 있다. 고객은 당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처럼 상대입장을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잠11:30).

좋은 땅에 거하는 자의 복

“하나님 제일중심으로 사는 한 해가 되자!”는 슬로건으로 시작한 2018년이 벌써 반환점을 돌고 있다. 각자 가슴에 품었던 한 해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지만, 앞으로 계속되는 하반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추동력을 얻는 일은 누구에게나 매우 소중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가 해마다 수련회 및 하계산상집회를 통해 강력한 영적 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 값진 일이다. 따라서 우리가 해마다 수련회 및 하계산상집회를 통해 강력한 영적 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 값진 일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늘 거하려 노력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시 84:10~12).

이스라엘 왕 다윗의 고백이다. 세상의 열락을 즐기며 보내는 삶보다 차라리 문지기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삶이 좋다는 고백이다. 다윗은 좋은 땅이 무엇인지 알았고, 좋은 땅에 거하기를 기뻐했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품 안에,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이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잘 알았던 사람이다.

운 하나님의 교훈들이 쏟아져 나온다. 스스로도 신기할 정도다. 목사님의 설교를 따로 메모하지도 않았는데, 생각나고 기억이 나서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 물론 여전히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께나 목사님께 면구스러울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감사의 은혜를 깨닫는 기회가 다른 누구보다 많다는 사실에 오직 감사, 또 감사다.

목사님의 말씀을 편집하며 느끼는 것이지만, 반복해서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허구한 날 같은 말씀인데 뭘 그러냐고 할지 모르지만, 목사님 말씀처럼 예수



풍성한 영적 충전의 자리, 가자! 기도원으로~!!

결실하는 자니라”(눅8:15).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방법이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이다. 먼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 애쓰고 노력하며,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여 열매를 맺는 삶. 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에 넉넉하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땅에 있어야 한다. 은혜의 자리를 찾아 그곳에 거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을 통해 예수를 영접한 것만으로도 복 중의 대복을 받은 것일진대, 그 넘치는 은혜에 더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인도해주셨다. 더구나 그 중에서도 목사님의 설교를 편집하는 일을 맡아 20년 넘게 일하다 보니 싫으나 좋으나 하루에도 몇 번씩 목사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롬10:17)는 성경의 말씀은 진리다. 마치 콩나물시루에 날마다 부어지는 물처럼, 흔적도 없이 밑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날마다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적셨고, 내 삶에 알게 모르게 크나큰 자양분이 되었다. 나도 모르게 입을 열면, 글을 쓰면 목사님을 통해 배

님의 말씀은 2천년 동안 같은 말씀의 반복이고 또 반복 아니던가. 그 반복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성장하고 튼튼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같은 말씀이라도 우리의 영적 상태나 마음자세에 따라, 처해진 상황에 따라 새롭게 다가오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허다함을 또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잘 알기에 목사님은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이다.

좋은 땅에 거하자.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자. 이제 하계산상집회와 수련회가 장성 예루살렘기도원에서 계속된다. 풍성한 영적 충전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기 바란다. 가자! 기도원으로~!!

한은택 목사

하계산상집회

일시: 7월 23일(월)~8월 2일(목) 장소: 장성예루살렘기도원
문의: 02-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눅22:39~46)

기도는 우리의 생명선이다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는 탯줄이 생명선입니다. 탯줄이 끊기면 태아는 죽습니다. 암벽을 오르는 자들은 밧줄이 생명선입니다. 그것이 끊어지는 순간 그는 바닥으로 추락하여 죽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 생명선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죽지 않으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5:17)고 한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하고,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런 연고입니다. 기도해야 영이 살고, 영이 살아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의 소원과 소망을 이뤄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 행복과 불행은 창조주요 주권자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잘 살려고 밤잠 안자고 일해 봤고, 자식 잘 되라고 죽어라 학원 보내고, 기러기 신세가 되면서도 유학도 보내봤고, 사업 좀 키워보려고 이리저리 뛰며 무던히 애써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살아볼수록 내 영역 밖의 일, 내 힘이나 내 노력으로 안 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내 인생의 많은 것들이 내 영역 밖에서, 내 능력의 영역 밖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도와 달라, 살려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혹자는 이런 것들이 기복신앙이라고 치부하기도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믿음, 현실을 벗어난 기도는 장식품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당장 내일 애들 등록금이 없는데, ‘세계 평화’나 ‘구원’의 기도가 나오니까? 그건 가식이지요. “아버지, 내일 애들 등록 마감입니다. 안 주시면 애들 학교 못 다녀요. 돈 주세요. 돈이요 돈!” 이것이 진실한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와의 싸움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힘들고, 고통 받고, 병들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이런 진실한 기도가 결핍되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선이 끊어졌으니 무엇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 형편을 봐주는 법이 없습니다.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가게 앞에 드러누우며 뺨깡을 놓습니다. 사달라고. 부모 지갑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정을 봐드립니다. 그것도 아주 많

이 봐드립니다. ‘아휴, 이런 것까지 기도해도 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들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픈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는지 압니까? “내 형편 봐줄 것 없다. 그냥 막 달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디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마7:7~8),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요14:14).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 속에 사는 것은, 여러분



총회장 이초석 목사

이 고난 중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건강하지 못한 것은, 여러분이 시험에 든 것은 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24절을 통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 안 해서 못 받는 것이지, 기도하면 다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안 되고, 저건 되고’가 아니라 죄가 아닌 이상, 욕심이 아닌 이상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했어요. 근데 안 되는데요.” 하는 분들, 기도의 독이 있다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기도의 독이 차야 기도가 이뤄집니다. 기도의 임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읽어보면 기도의 향로, 기도의 독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 때까지 기도해야 이뤄집니다.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웠을 때 물이 변

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기도의 독이 차면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시켜 당신을 형통케 할 것입니다.

시편 107편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시107:10~11)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는데 안 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존자의 뜻대로 부르짖으면 지존자 하나님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시고’(시107:14), ‘놋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시고’(시107:16),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신다’(시107:20)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독이 차면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시켜 당신을 형통케 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약5:13). 병들었습니까? 기도하는 장로들을 청하여 함께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약5:15).

가장 위대한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한 것은 오직 기도였음을 알아야 합니다. 홍해 앞에서도, 고기가 없을 때도, 물이 없을 때도, 적들에게 길이

막혔을 때도 그는 오직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광야 같은 곳에도 물이 흐르고, 아름다운 꽃이 필 것입니다. 기도는 절대 부도나지 않기 때문이고, 기도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렘33:3). 때로는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하십시오(마6:6).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고(시126:5), 감사로 기도하십시오(빌4:6). 그리고 가족과 함께, 교회에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십시오(마18:19). 기도만이 은혜의 통로, 능력의 통로입니다.

불이 꺼지기 전에 기름을 부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 자신이였습니다. 그런 그분도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계시는 동안 기도의 일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십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마4:2). 그리고 예수님은 동트기 전에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기도를 하셨습니다(막1:35). 또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후에도 한적한 곳에 이르러 저녁에 기도하셨고(눅5:16), 산에 오르사 기도하셨습니다(마14:23). 12제자를 뽑을 때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눅6:12),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겻세마네 동산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애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눅22:44).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인자의 삶을 마감하셨습니다(눅23:34).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친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의 일생을 살아야 합니다. 짧게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하며, 길게는 일생을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쳐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까지 탈나지 않고 갈 수 있고(벧전4:7), 사는 동안 시험에 들지 않고(눅22:46), 귀신을 쫓을 수 있어 사는 동안 삶에 장애물이 없을 것입니다(막9:29).

기도하는 국가, 기업, 단체, 교회, 가정, 개인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18:18).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객원컬럼 ::

:: 오늘의 메시지 ::

마음을 사는 방법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느 늦은 밤, 미국 필라델피아의 허름하고 작은 호텔에 노부부가 객실을 구하러 왔습니다. 호텔 직원은 자기 호텔에는 방이 없다며 인근 호텔을 수소문했지만 방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도시의 축제와 행사로 인해 인근에도 빈 객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바람이 치고 밤도 너무 늦었으니 팬찮으시다면 제 방에서 묵는 것은 어떠실까요?”라고 말하면서 노부부에게 자신의 방을 내주었습니다.

노부부는 다음 날 호텔을 나서면서 “당신은 미국에서 가장 좋은 호텔의 사장이 되어야할 분인 것 같네요.”라고 말하면서 방값의 3배를 건넸으나 그는 직원 방은 객실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며 극구 사양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 그 때의 노부부가 호텔 직원에게 뉴욕 왕복항공권과 함께 자신들을 방문해달라는 편지를 보내 왔습니다. 직원은 휴가를 내고 노부부가 초대한 호텔로 갔습니다. 그가 도착하자 노부부는 새로 지은 웅장한 호텔 현관에서 그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이 호텔을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호텔의 경영자는 당신입니다.”

오픈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호텔이라는 기록을 세웠던 미국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의 초대 경영자로 세계굴지의 호텔 체인을 이룩한 조지 볼트(George Bolt)의 실화입니다.

친절과 배려는 사람의 마음을 사서 사람

을 놓치지 않고 품을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뜻밖의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마10:42)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 나의 생각을 버리고 상대방인 하나님의 생각을 배려하고 친절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고, 성경의 의미를 분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셋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배려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반전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이에 따라 선하고 신실하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전시켜 주시지 않을까요?

이관섭

kwansup1029@gmail.com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

춘추시대 제나라에 안영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안영이 시내를 나설 때마다 유난히 기고만장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말고삐를 잡는 경마잡이 종이였다.

어느 날 종의 아내가 심각하게 충고를 하였다. “안영은 비록 재상이지만 겸손한 자세가 역력한데 당신은 일개 종의 신분으로 무엇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오만방자한 자세로 거리를 활보하십니까?”

이 말에 들은 종은 그 다음부터 근본적으로 자세가 변했고, 이를 가상히 여긴 안영의 주선으로 차츰 성장하여 대신의 반열에 올랐다고 한다.

성경에 하갈이라는 여인이 있다(창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여종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의 부인이 되었고, 늙기까지 일점혈육을 두지 못하여 고민하던 아브라함에게 하갈은 아

들을 낳아주었다. 그러자 하갈은 오만방자하여 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했다. 결국 하갈은 다시 하녀의 신분으로 환원되어 광야로 쫓겨나고 말았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는 원인이 무엇이었던가? 다윗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행13:22), 사울은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왕 삼은 것을 후회’(삼상15:11)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잠18:12)라고 성경은 말씀한다. 또한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잠22:4)고도 말씀하신다.

우리 모두 하갈이나 사울의 전철을 피하고 다윗과 같이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자.

김상욱 목사
ksw9669@hanmail.net



:: 세상을 보는 창 ::

:: 연단을 넘어 ::

1%의 기적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부진하던 우리 대표팀이 6월 28일 새벽 F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독일을 2대 0으로 꺾으며 1% 확률의 기적을 이뤄냈다. 경기 전 미국의 유명 통계사이트 ‘파이브서티에이트’는 월드컵 F조 조별리그에서 한국이 조1위가 될 확률은 아예 없고, 2위를 차지해 16강에 진출할 확률이 1%라고 전망했다. 사실 세계 랭킹 57위 한국이 1위 독일을 이길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독일은 ‘디펜딩 챔피언’으로 역대 월드컵에서의 화려한 전적을 갖고 있으며, 유력한 우승 후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선수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혼신의 힘을 쏟아 독일을 F조 4위로 밀어냈다. 이 경기는 단순히 월드컵에서의 1승 경기가 아닌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0.1%의 빛줄기라도 보인다면,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기적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교훈을 준 경기였다.

1%는 하찮은 것 같지만 너무나 소중한다. ‘1%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 가끔 어떤 제품이나 사람을 놓고 1%가 부족하다는 말을 한다. 우리는 1%를 찾아내어 그 1%를 개발해야 성공한 완전품이나 인격이 된다. 사람

들은 99%의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1%의 빛나는 장점이 있다. 그 1% 때문에 그를 믿어주고 밀어줘야 한다. 그래야 그 빛나는 1%가 다시 숨 쉬고 살아난다. 그 1% 때문에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말이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며 역전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어떤 작은 것에서도 기적이 창조된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웃이 낡지 아니하고 신이 헤어지지 않게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인생은 끝나기 전까지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 끝난 것 같은 그 곳에서 하나님의 희망이 솟구쳐 오르고 하나님의 기적이 기다리고 있다.

1%를 100%로 만들어 기적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노력하자. 반드시 성공의 역사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정금 전도사

jungkm@nate.com

Right now

헬스를 시작한지 10년 정도 되니 종종 운동에 관해 질문을 받곤 한다. 언제가 운동의 최적의 시간인지, 최고의 운동은 무엇인지, 최고의 식단은 무엇인지, 최고의 다이어트 운동이 뭔지. 이 질문에 “지금 시간이 되시면 오늘 같이 운동해보자.”라고 한다. 그럼 혹자는 따라오지만, 혹자는 내일부터 하겠다고 한다. 그 순간 이미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인다. 어떤 일을 하기에 좋은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어떤 일을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가 그 일을 위한 좋은 시간이 되어가는 것이지 좋은 시간, 최적의 때는 평생 찾아오지 않는다. 일의 성취엔 동기부여와 완벽한 계획보다 ‘행함’의 축적이 필요하다. 가슴이 뛰어야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뛰면 가슴이 뛰기 시작한다.

얼마 전 한 TV프로그램을 통해 차인표 씨가 하루 일과 중 자기 전 3시간을 ‘Right now’라는 시간으로 배정해 사용한다는 말을 들었다. 가장 사랑했던 막내 동생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생각해보니 단 한 번도 동생의 눈을 보고 사랑한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내 동생은 형이 자신을 얼마나 사

랑하는지 모르고 갔다고. 그 이후로 다시는 꼭 해줘야 할 말, 해야 할 일,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미루지 않고 곧장 하기로 다짐하고 실천해가고 있으며, 그 후로 삶이 풍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성경도 중요한 모든 것을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히3:13), ‘해가 지기 전에’(엢4:26) 하라고 명령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금 전화해야 한다. 부모님께 오늘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 오늘 묵인 문제를 위해 작정기도를 시작해야 한다. 오늘부터 성경을 보면 성경을 1독할 수 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기억하자. 마귀는 어떻게든 중단하게 만든다. 절망을 주면, 아프게 하든, 시선을 빼앗든 마귀의 목적은 단 하나, ‘중단’이다.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이고 마귀의 시간은 ‘내일’이다. 하나님의 일, 가치 있는 일, 소중한 일, 미래의 내가 고마워할 일이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라. 바로 그때부터 내 삶의 가장 좋은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가장 좋은 시간을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은총 전도사
unjena7@hanmail.net

고착상태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고착’이라는 말이 있다. 엄지손가락을 빠는 어린아이가 그릴 나이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손가락을 빠는 것을 고착된 심리상태라 한다. 어떤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늘 담요 한 장을 들고 다니는데 이 아이는 그 담요로부터 안정을 찾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아이에게 물어보았다. “커서 대학에 가면 그 담요를 어떻게 할 셈이냐?”라고. 그러자 아이는 대답했다. “이 담요로 운동복을 만들어 입겠습니다.” 여기에서 끝까지 담요를 버리지 못하는 인간의 고착된 심리를 발견하게 된다.

우리 신앙에도 이러한 고착 심리현상이 있다. 이것을 ‘영적 고착상태’라고 말하면 지나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집착하는 우리의 신앙 상태, 오랫동안 신

앙생활을 해도 버리지 못하는 옛 습관, 그리고 아직도 벗어나버리지 못하는 아집,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모습들, 예배 분위기는 조용해야지 꼭 손뼉 치며 찬양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불만의 모습들... 고착된 사고에서 벗어나야지만 놀라운 영적 변화와 진정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 라는 매우 존경받던 사람이 있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에게 항복문서를 받기 전에 맥아더 장군이 미주리 함으로 초청하여 자문을 구할 정도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화려하지 않았다. 그는 젊은 나이에 폐결핵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자살을 시도하게 되었는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다 깨닫게 되었다. 예수의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표’라는 사실이었다.

이것을 깨달은 후부터 가가와는 소달구지에 짐을 싣고 빈민굴로 들어가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다. 그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한 번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나방이 나오려면 그 껍질을 깨야하고 병아리가 나오려면 계란껍질을 깨야 하고, 새가 나오려면 알을 깨고 나와야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창고를 날기 위해서는 나의 껍질을 깨트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고착된 신앙 상태에서 깨어나야만 할 것이다.

차명선 목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보혈의 피 값을 지불하고 산 천하보다 귀한 보배 중의 보배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시며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시고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Good News

동네 골목길에서 공놀이를 하던 개구쟁이 소년이 실수로 소문난 호랑이 할아버지의 가게 진열장 유리창을 박살내고 말았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뛰쳐나와 호통을 치며 그 유리 값을 물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린 소년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손이 발이 될 정도로 빌면서 사정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우리 엄마에게 말씀 드려

서 갚아드릴게요.” 그 소년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엄마에게 또 혼이 날까봐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소년은 호랑이 할아버지가 무서워서 학교도 가지 못하고 뒷동산에 가서 배회하며 불안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는 살 수가 없어서 용기를 내어 울면서 엄마에게 사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혼이 날줄만 알았는데 엄마가 꼭 안아주면서 “아들이 괜찮아! 엄마가 오늘 낮에 유리 값을 다 갚아 주었다.” 불안해하던 아이에게 마침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 From Internet::

어린소년과 백만장자 노인의 훈훈한 미담이 미국 사회에 화제가 됐습니다. 20세기 초, 미국 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10살 정도인 남자아이가 1달러를 손에 꼭 쥐고 거리에 있는 상점마다 들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가게 주인들은 안 판다고 말하거나 혹은 아이가 장사를 방해한다고 생각해 매몰차게 내쫓기도 했습니다. 해가 점점 지고 있었지만 아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69번째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가게에서는 하나님을 파시나요?”

가게 주인은 60이 넘는 머리가 하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서 무엇 하려고 그러니?”

자신에게 제대로 말을 걸어주는 사람을 처음 본 아이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고, 자신의 사연을 노인에게 털어놨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삼촌이 돌봐주고 있는데, 얼마 전 삼촌마저 건축 현장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현재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삼촌을 치료하던 의사가 아이에게 “삼촌을

구해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이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라는 것이 정말 신기한 물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천진한 아이는 의사에게 “제가 하나님을 사와서 삼촌에게 먹이면 꼭 나을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말을 들은 노인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돈은 얼마나 갖고 있지?”

아이는 대답했습니다. “1달러요.”, “마침 잘 됐구나. 하나님은 딱 1달러거든.”

노인은 아이의 돈을 받아 선반에 있던 ‘하나님의 키스’라는 음료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여기 있단다. 애야, 이 하나님을 마시면 삼촌이 금방 나을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기뻐하며 음료수를 품에 안고 쏙살같이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아이는 자랑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삼촌! 제가 하나님을 사왔어요! 이제 곧 나으실 거예요!”

다음날, 세계 최고의 의료전문가들이 전용기를 타고 이 작은 도시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삼촌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와 삼촌의 상태를 진찰했습니다. 아이의 삼촌은 정말로 병이 금방 낫게 되었습니다.

삼촌은 퇴원할 때 천문학적인 병원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 쓰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어떤 억만장자 노

인이 이미 비용을 전부 냈다고 말했습니다. 삼촌을 진찰한 의료진도 이 노인이 고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삼촌은 나중에야 아이가 마지막으로 들른 가게의 주인이 억만장자 노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노인은 할 일이 없을 때 가게에서 적절한 시간을 보내곤 했던 것입니다.

감격한 삼촌은 아이와 함께 노인의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여행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가게 점원은 이들에게 이번 도움을 마음에 크게 담아두지 말라는 말과 함께 노인이 쓴 편지를 전했습니다. 삼촌은 그 자리에서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젊은이, 내게 고마워할 필요 없네. 사실 모든 비용은 자네의 조카가 다 낸 것이니 말일세. 자네에게 이런 기특한 조카가 있다는 것이 정말로 행운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네. 자네를 위해서 1달러를 쥐고 온 거리를 누비며 하나님을 찾아다녔으니 말이야. 하나님께 감사하게. 자네를 살린 건 그분이니 말일세!”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마7:7~8).

스타의 복음전파

<쥬라기월드: 폴른 킹덤>, <어벤져스3: 인피니티 워>에도 출연한 배우 ‘크리스 프랫’, 그는 지난 6월 18일,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 바커 행사에서 열린 ‘2018 MTV 무비 & TV어워즈’에서 ‘체너레이션 어워드’를 수상했다. 그는 수상소감 대신 “나는 차세대인 당신들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인생 선배로써 책임감을 느낀다. 잘 들으라.”며 몇 가지 조언을 이어갔다.

“첫째, 당신은 영혼을 가지고 있으며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 여러분이 강한 사람이라면 보호자가 되고, 똑똑한 사람이라면 겸손한 영향력을 행사하십시오. 힘과 지능은 무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내세워 약자와 맞서지 마십시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봉사하십시오. 이는 기본 좋은 일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난 그렇게 믿습니다! 넷째, 기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기도하는 것은 쉽고 당신 영혼을 유익하게 해줄 것입니다. 다섯 째,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완벽하다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지금 모습으로 디자인한 분이 계십니다. 만약 이것을 받아들이 마음 있다면 당신에게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듯이 은혜는 한 분의 피를 통해서 대신 지불되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절대 당연시 여기지 마십시오! God bless you! 여러분의 가정이 안전하기를!”

그는 항상 익살스러운 역할을 하는 배우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많은 관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의 선한 영향력을 본받으며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송현혜 자매

charisma0691@hanmail.net

청소년 연합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8월 6(월)~8일(수)

청년대학부 수련회
8월 9(목)~11일(토)